

“남해안철도 공사 전철화 동시 추진해야”

〈목포 임성리·보성〉

“400억 절감·개통 2년 단축 2022년 가능” 결과 나와

윤영일 의원, 경전선 전철화 사업 용역 보고서 분석

비전철(디젤)로 추진 중인 남해안철도 목포 임성리-보성 구간 공사를 전철화 공사와 동시에 추진하면 경제성이 높아지고 개통시기도 앞당길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전선(보성~목포) 전철화 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를 분석해 24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목포-보성 구간 철도 공사를 전철화 공사와 동시에 추진하고 부산(부전)까지 급행열차로 운행할 경우 오히려 경제성이 있고 예산 또한 4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애초 경전선(남해안 철도) 전체 구간 중 목포-보성 구간을 비전철로 추진하고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전철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목포-보성 구간을 비전철 노선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비가 1249억원이 드는데 비해 비전철 개통 후 다시 전철화 공사를 추진하면 추가로 1907억원이 들어 3156억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재 비전철 노선으로 추진 중인 공사를 전철화 공사와 함께 추진할 경우 1507억원의 비용만 발생해 총사업비는 2756억원으로 애초 계획보다 오히려 4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보고서는 개통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 계획대로 비전철 철도 공사 마무리 후 전철화 공사를 곧바로 재개할 경우 2023년 공사가 끝나고 2024년 개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

인 철도 공사를 내년부터 전철화 공사와 함께 일괄 추진하면 2021년 공사가 마무리되고 2022년 개통이 가능해 2년 앞당길 수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목포-보성 구간에 대한 전철화 공사를 내년부터 동시 추진하면 불필요한 지역차별 논란 해소와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며 “전철화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총사업비를 증액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부전)~목포(임성리) 노선인 경전선(남해안철도)은 부산에서 순천까지 전철 차량을 이용하고 순천에서 내려 비전철(디젤열차) 차량으로 갈아탄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화순 도곡은천관광지 확 바뀐다

전남도 체험·체류형 관광거점 재생사업 추진

화순 도곡은천관광지가 최신 트렌드에 맞춰 리모델링된다.

전남도는 조성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 관광지의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게 문화콘텐츠 등을 접목하는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조성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 관광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최신 관광 트렌드에 맞춰 체험·체류형 관광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노약자와 같은 관광 취약계층을 배려한 무장애(Barrier-Free) 시설 등을 보강하고, 지역의 전통문화·예술 콘텐츠를 가상(VR) 증강현실(AR) 프로그램으로도 제작한다.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첫 사업지로 선정된 화순 도곡은천은 1989년 관광지로 지정됐다. 접근성이 양호하고 온천단지 주변에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유적지 등 관광자원도 많지만, 시설 노후화로 방문객이 감소해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화순군은 이번 시범사업과 연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어린이 직업체험센터와 숙박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20억원(도비 10억원·군비 10억원)을 들여 관광지 보행환경 개선과 산책로 경관 정비, 역사·문화자원



화순 도곡은천 전경.

실감미디어콘텐츠 체험관 조성 등을 추진한다.

전남도도 외부 전문가 컨설팅으로 재생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매년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지역에는 목포·구례 관광특구를 포함해 모두 35곳의 지정 관광지가 있다. 이 중 18곳이 지정된 지 20년이 넘어 방문객을 위한 시설 보완이 필요하고, 새로운 관광 매력요소 개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우욱 전남도 관광과장은 “관광지 재생사업도 단순한 시설 개·보수에 그치지 않고 지역 역사와 문화·예술콘텐츠를 관광 자원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제1회 섬 컨퍼런스 열려

‘섬에 관한 100가지 생각을 있다’란 주제로 24일 오후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2018 제1회 섬 컨퍼런스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박지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김일재 정보혁신조직실장, 김종식 목포시장, 김승수 목포독서관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X 세종역 신설 갈등 전국으로 확산

호남선 노선 신설 주장 가세 찬반 논쟁 가열

KTX 세종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충청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호남선 노선을 신설하는 주장까지 가세해 찬반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남선 KTX와 관련해 세종역이 포함된 단거리 노선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세종정사 공무원들의 교통비와 출장비만도 연간 200억원이 든다. 지금처럼 오송역에서 내

려 20분 넘게 더 이동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신규 고속철도 개통 노선에 대비하고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서는 평택~천안~세종 단거리 노선 신설이 평택~오송 복복선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열린 충북도 국경감사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세종역 신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주승용(전남 여수) 의원은 국감 질의를 통해 “행정수도에 KTX 역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언젠가는 KTX 세종역이 들어서야 한다”며 “세종역 신설 필요성을 주장한다”며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 의원에

“세종시의 인구가 60여만 명을 넘어서고, 국회 분원이 들어서면 사실상 행정수도가 될 것”이라며 “(행정수도가 될) 세종시에 세종역이 생기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김병만 의원은 “(KTX 세종역 신설 논란이) 잘못하면 지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충청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상생 발전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충청권 협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KTX 세종역 신설은 민주당 이해찬(세종) 대표의 공약이다. 충북은 세종역이 생기면 불과 15km 떨어진 청주 오송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 충북과 세종을 중심으로 갈등을 겪으며 그동안 충청권의 문제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전남 국감에 이어 호남을 중심으로 세종역 신설 찬성론이 퍼지면서 이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지경 기자 jkpark@연합뉴스

‘AI 차단’ 전남도 모든 오리농가 생석회 살포

전남도가 모두 오리농가에 생석회를 일제히 살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차단한다.

이날 사육 중인 모든 오리농가 309곳을 대상으로 생석회를 일제히 살포토록 했다.

도는 앞으로 11월 2회, 12월 3회 등 총 6차례에 걸쳐 20kg짜리 8만4000포대를 뿌릴 계획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내 아이의 미래를 바꿀 교육 글로링크 에듀센터

순천 최대규모의 교육시설과 함께하실 사업자 분들을 초청 합니다!!

글로링크 에듀센터는 국제학교 개념으로 설립되는 대형 융복합 학원 교육시설입니다.

문의 : 02-502-8898 | 서울본사

파격가 임대!! ▶ 권리금 없이 시세로 임대 100%전세도 환영

(전세가능)

- 1층 입점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문구점, 약국, 편의점, 안경점 등
- 2층, 3층 Kids Cafe, 영어도서관, 스포츠학원, 입사상담, 심리상담(치료), 유학컨설팅, 과학, 레고, 로봇 등

성심부동산 010-6665-7355 대표 김중호

광주광역시 인구조번복지지원회 광주전남지회

함께 하면 돈돈 육아 성공비법

직장·가족·이웃

- 직장·가족·이웃
- 직장·가족·이웃
- 직장·가족·이웃
- 직장·가족·이웃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불균형개선
광주광역시 저출산 극복사회연대회의가 함께 합니다

2019학년도 전남대학교 전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21세기 글로벌 엔지니어 리더에 도전하십시오!!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 [주~2회, PM 7~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無 논문제)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 프로그램 제공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과정 시스템 운영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전형일정

구분	일정
입학원서 작성	2018. 11. 05.(월) ~ 11. 19.(월) 09:00~18:00
입학원서 접수 (제출서류 포함)	우편 2018. 11. 05.(월) ~ 11. 19.(월) 09:00~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창구 2018. 11. 05.(월) ~ 11. 19.(월) 09:00~18:00
전형일정	2018. 12. 04.(화) 10:00 ~
합격자발표	2018. 12. 20.(목) 11:00(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토목공학/화학공학/환경에너지공학/신환경농업학/식품·외식산업학/지역발전자원공학/전자컴퓨터공학(계약학과)
- 문의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DUSTRY TECHN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